



Department of Justice

속보

2002년 4월 12일 금요일

WWW.USDOJ.GOV

CRT

(202) 616-2777

TDD (202) 514-1888

법무부는 언어장벽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영어 능력 부진 안내지침서를 연방정부 관보로 발송함

워싱턴, D.C. - - 금일 법무성은 정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겪게 되는 언어 장벽문제를 보다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영어 능력 부진(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에 대한 안내지침서를 연방정부 관보(FEDERAL REGISTER)로 발송하였습니다. LEP 안내지침서는 2001년 1월 16일 법무부에서 발행한 정책 안내지침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이 안내지침서는 연방 재정 보조를 받는 수혜자들이 중요한 서비스를 받을 때에 영어 능력이 부진하여 의미 있는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되는 언어 장벽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그들 자신도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라고 랄프 F. 보이드 주니어(Ralph F. Boyd, Jr.) 민법부문 법무차관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LEP 안내지침서는 연방 재정 보조 수혜자들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영어 능력이 부진한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EP 해당 개인에게는 언어 문제가 중요한 혜택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중요한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며, 해당 책임을 준수하거나, 연방 기금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정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자격이 있는 LEP 해당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서비스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LEP 대상자들이 당면할 수 있는 언어적 분단에 의미 있는 다리가 되어줄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 목표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LEP 안내지침서에서, 법무부는 이 조치의 정당성은 다음의 네 가지 요소의 분석에 의해 결정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수혜자격의 해당 주민 중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그에 당면한 LEP 대상자의 인원수나 비율
2. LEP 대상자와의 연락 빈도
3. 프로그램의 본질과 중요도
4. LEP 안내 및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어를 읽고, 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어가 그들의 제1언어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0년도 인구조사를 기초로 하면, 가정에서 2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약 700만 명이 아시아계나 태평양 섬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영어를 읽고, 말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 사람들은 영어 능력 부진 또는 "LEP"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2000년도 인구조사의 세부 데이터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모든 스페인어 사용자의 26%, 모든 중국어 사용자의 29.9%, 모든 베트남어 사용자의 28.2%가 1990년 인구조사에서 영어를 "잘 못한다" 또는 "전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